

휴대폰/IT부품산업

중국 5월 스마트폰 출하량 회복세

중국 5월 출하량은 전년비 크게 증가. 업체별로는 중화권 업체들의 회복 강도가 강했음. 다만, 618 흥행 실패를 고려했을 때 단기 하락 가능성 존재. 하반기에는 iPhone 15 시리즈 판매 호조세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

Analyst 이규하
02)768-7248, kyuha.lee@nhqv.com

중국 스마트폰 전년비 출하량 회복세 긍정적

중국 5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2,520만대(+21.1% y-y, +39.5% m-m)를 기록하며 2월 이후 전년비 증가세 지속. 판매량은 4월까지 전년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022년 재고조정 영향과 618 페스티벌 및 하반기 수요 회복을 고려한 출하량 증가세라고 판단

업체별로는 Apple 출하량이 4월까지 전년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5월에는 소폭 감소세. 반면 중화권 업체들의 출하량은 4월까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5월에는 전년비 35.1% 증가. 6월에 실시한 618 페스티벌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음을 고려하면 6월과 7월까지의 출하량 감소할 가능성 존재

이미 낮아진 수요 회복 기대감, 하반기 iPhone 판매 호조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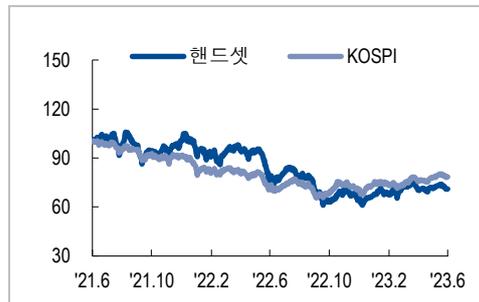
아직 중국 시장의 본격적인 수요 회복의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교체주기 확대, 2022년 기저효과, 세트 업체들의 하반기 프로모션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 개선 가능성 존재. 특히 2022년 정저우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와 다수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있는 iPhone 15 시리즈 판매 호조세 전망

국내 부품업체 관점으로는 이미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어 수요 회복이 나타나는 경우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은 커질 것. 관련 업체로는 LG이노텍, 삼성전기의 수혜 전망

Positive (유지)

	PER(배)	PBR(배)
KOSPI	15.7	1.0
Sector	9.1	0.7

Sector Index



업종 시가총액 13,267십억원 (Market 비중 0.6%)
주: KRX업종 분류 기준

5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단위: 백만대, %)

Company	May-23	May-22	y-y(%)	Apr-23	m-m(%)	2023 YTD	2022 YTD	y-y(%)
로컬 브랜드	22.4	16.6	35.1	16.4	36.9	85.6	90.7	-5.6
해외 브랜드	3.6	4.0	-9.9	2.3	56.6	21.9	17.4	25.7
5G 스마트폰	20.2	17.7	13.9	13.3	51.7	85.0	86.2	-1.4
Market	25.2	20.8	21.1	18.1	39.5	103.5	106.4	-2.7

자료: CAIC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1.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15% 초과
 - Hold: -15% ~ 15%
 - Sell: -15% 미만

2.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기준)

- 투자의견 분포

Buy	Hold	Sell
82.2%	17.8%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